

I. 생활과 윤리의 의의

◎현대 생활과 윤리학

1. 윤리학의 구분

★Key Point: "어디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가?"로 구분

1) 이론 윤리학

- ①도덕적 이론, 법칙, 원리에 관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추구. 기초 학문에 해당
- ②관심 주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준이 무엇인가?"
- ③예: 의무론적 윤리, 목적론적(공리주의) 윤리

2) 실천 윤리학

- ①실생활, 현실, 세상(사회)에 있는 윤리 문제에 관심 갖고 해결책 모색. 응용 학문에 해당
- ②예: 생태 윤리, 생명 윤리, 정보 윤리, 환경 윤리 등

■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공통점

- ①모두 규범 윤리학에 속해요.
- ②도덕적인 행위의 옳고 그름을 다루지요.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 삶에 도움을 줍니다.

3) 메타 윤리학

- ①메타를 '네타'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타'니깐 "언어"가 주된 관심사예요.
- ②구체적으로 "도덕적 언어"에 관심을 갖고 분석한답니다. 언어의 "의미"에도 관심 많고요.

2. 의무론적 윤리설 VS 목적론적 윤리설

	중시하는 것	도덕 규범을 지켜야 하는 이유	대표 사상가
의무론	행위의 동기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이므로	칸트
목적론	행위의 결과	지키는 것이 사회에 이득이 되므로	벤담

3. 니부어와 사회 윤리

★Key Point: 니부어 주장의 요지 파악. "집단이 더 이기적" "제도적 해결이 중요"

그렇다고 니부어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니예요.

1) 사회 윤리 & 사회 제도적인 해결의 필요성

- ①개인보다 집단이 더 이기적이고, 개인이 양심적이라도 집단이 비양심적일 경우가 많아서
ex) 일본인 개인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나쁜 짓 많이 하죠.
- ②따라서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집단 이기주의"가 해결이 되지 않죠.
- ③그래서 "집단 이기주의"는 제도, 법률을 통한 사회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2) 그래서 니부어는 "사회 제도적 해결법"을 "개인 차원의 대안"보다 훨씬 중시합니다.

즉, 니부어의 인식은 "(사회 제도)>>>넘사벽>>>(개인 차원)"이예요.

3) 단, 그렇다고 "개인 차원의 노력"을 아예 무시하진 않았습시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사회 정의에 기여"가 니부어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전통 윤리 사상(유교·불교·도교)

1)유교

- ★Key Point: ①인위적 노력을 통해 선한 본성을 길러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
- ②공동체주의("자기(己)", "사사로움(私)"을 버릴 것을 특히 강조)

(1)성선설

- ①인간에게는 타고난 선한 본성인 "四端(사단)"이 있다는 주장
- ②인간의 본성이 선한 이유: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기 때문
→유교에서는 "하늘"을 선함과 도덕의 근원이 되는 인격적인 존재로 본답니다.

(2)후천적인 노력 강조

- ①"인위적 노력"을 통해 "선한 본성"을 길러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
- ②그렇기에 유교는 "해야 한다" 투성이예요. 사덕(인, 의, 예, 지), 거경, 신독, 수기 등
*신독(慎獨):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
*수기(修己): "스스로를 부지런히 갈고 닦아 인격을 도야해야"

(3)공동체주의

- ①유교에서는 "사사로운 것(私)"와 "자기(己)"를 위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본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사욕(私慾)"을 극복해야 한다는 말을 하죠
- ②극기복례(克己復禮): "스스로의 이기심을 이기고, 마땅히 지켜야 할 예(禮)로 돌아오라"

(4)군자(君子):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2) 도교

- ★Key Point: ① "Be Natural!",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억지로 뭔가 하지 말 것(無爲:무위)
② 유교의 극렬 안티("인의예지", "덕" 등 유교 덕목은 모두 비판)

(1)유교에 대한 강한 비판

- 인위(人爲)적인 노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

ex) "발돋움하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스스로 나타내는 자는 뚜렷해지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내지 못한다." from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2)그 대안으로 "무위자연(無爲自然)", "좌망(坐忘)"과 "심재(心齋)"를 제시

- ①무위(無爲):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 것(억지로 착한 척 할 필요 없음)
- ②자연(自然):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살아갈 것. 건드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놔 둘 것
- ③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 ④좌망(坐忘): 가만히 앉아 멍 때리라는 의미(실제로 건강에도 좋습니다.)
- ⑤심재(心齋): 마음(心)을 목욕재계(齋)하듯 깨끗하게! 허심(虛心)과 같은 의미
- ⑥도덕경: "하늘은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김" "성인은 백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

(3)지인(至人), 진인(真人)

→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 욕심 부리지 않고 도를 따르며 소박하게 사는 사람

3) 불교

- ★Key Point: ①탐욕, 집착 등 삼독(三毒)을 철저히 경계
②이상적 인간상은 보살: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

(1)"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불변의 자아" 등이 오답으로 자주 출제

(2)"고집부리지 말고, 탐욕을 멀리하라. 집착과 탐욕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

→"고집, 탐욕, 성냄"은 삼독(三毒): 사람을 죽음과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

*저는 "삼독"에서 "코브라"를 연상해 냈습니다. "코브라"는 인도에 많잖아요. 인도에 코브라한테 피리 붙면서 춤추게 만드는 사람들 생각하 보세요. 그리고 인도가 불교의 발상지이지요?

그래서 "삼독→독뱀→코브라→인도→불교"로 연상을 한답니다!

짤막하게 하면 "삼독은 코브라, 코브라는 인도, 인도는 불교"

(3)연기(緣起)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는 가르침
→연기의 '연'에서 "인연"을 떠올리세요. 인연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4)"무언가에 얽매여(예: 돈, 명예) 고집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다 부질없다. "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해탈)"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난다.

(5)"열반", "보시", "바라밀" 등은 불교에만 있는 용어입니다.

■ 유교와 불교의 공통점: 성선설(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 유교, 불교, 도교 모두의 공통점

①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존재

② 욕심의 절제를 강조

◎ 토론

■ 자유 토론의 좋은 점

① 윤리적 성찰을 가능하게 함

② 토론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앎을 얻을 수 있음

③ 토론을 통해 진리의 가치를 재확인

④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가 가능

■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① 소수의 의견이 진리이고, 다수의 의견이 오류일 수도 있으므로

② 소수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 있을 수 있으므로